

고맥락 언어와 저맥락 언어에 대한 고정관념 검증: 국내외 이태원 사고 기사 제목을 중심으로*

박건영(경희사이버대학교)

안수경(한국의국어대학교)

1. 서론

통번역이 단순히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것뿐 아니라 서로 다른 언어의 기저에 깔린 문화적 차이를 고려해야 하는 행위라는 시각은 번역학의 초기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일찍이 1960년대에 Nida는 동태적 동가(dynamic equivalence)의 개념을 제시하며 메시지는 수신자의 언어적 필요(linguistic needs)와 문화적 기대(cultural expectation)에 부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Munday et al., 2022, p. 57). 전 세계인이 교통과 인터넷을 통해 활발히 교류하고 지구 반대편에서 생산한 문화 콘텐츠와 발생한 사건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오늘날 통번역에 있어서 문화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이에 따라 통번역 현장에서는 통번역사의 업무와 역할에 있어서 이전보다 더욱 문화중개자(cultural mediator)로서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으며(Katan

* 본 연구는 2022년 2학기 한국외대 일반대학원 문화번역주제연구 수업의 팀 프로젝트에서 출발하여 2023년 한국번역학회 봄 학술대회에서 일부 소개되었다. 초안부터 응원해주셨던 성승은 교수님과 학회 토론자 홍정민 교수님, 그리고 본 논문을 심사해주신 3인의 교수님들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심사의견 중 본문에 반영하기 어려운 내용은 각주로 옮겼음을 밝힌다.

& Taibi, 2021, p. 18) 통번역 교육의 목표도 ‘번역 이상을 할 수 있는 인력 (people who are able to do rather more than just translate)’을 양성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2000년대 이후 제기되어 왔다(Pym, 2000, p. 190, 강조는 연구자).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사고¹⁾의 보도 양상에 주목하였다. 이태원 사고는 한국에서 단일 사고 인명피해로는 2014년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최대 규모로(이성훈, 2022) 사고 원인과 대처, 영상 유포 등 여러 논란이 있었으며²⁾ 국내에서 재난보도와 관련하여 어떤 어휘를 사용할 것인지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 여러 의견이 나누어졌었다. 국내에서는 사건 발생 직후 “이태원 클럽 골목서 비극... 서로 지나가려 밀치다 깔렸다”는 제목으로 보도하여(김희원, 2022) 헬러위를 즐기기 위해 클럽을 방문한 젊은이들에게 일어난 사고로 피해자 개인의 잘못이 있다는 뉘앙스를 전달하는 한편 명칭과 관련해서는 “‘압사’라는 단어는 빠라”는 정부 측 지침이 있기도 했다(엄지원과 천호성, 2022). 이와 달리 외신의 경우 “Was Seoul’s deadly Halloween crush preventable?”이라는 제목을 통해(Draudt, 2022) 이태원 사고가 인재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등 국내 언론사의 기사 제목과는 조금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듯 보였다. 본 연구는 이태원 사고에 대한 국내외 기사 제목의 이러한 차이 인식을 출발점으로 한다. 이태원 사고를 하나의 사례로 삼아 재난보도에 있어 국내 언론사와 외신이 동일한 사건을 어떻게 다르게 보도하는지를 맥락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국과 미국 신문사의 이태원 사고 보도 기사제목을 비교해 볼 것이다.

-
- 1) 사고는 ‘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일’을 의미하고, 참사는 ‘비참하고 끔찍한 일’을 뜻한다(표준국어대사전). 현재 국내 언론에서는 ‘이태원 사고’와 ‘이태원 참사’로 혼용하고 있으며 이면에는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있기도 하였다(정진형, 2022). 재난 보도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본고에서는 재난의 의미, ‘뜻밖에 일어난 재앙과 고난’과 가까운 ‘사고’로 통일하였다. 본고에서 지칭하는 ‘이태원 사고’는 정치 이념을 반영한 선택이 아니었음을 밝힌다.
 - 2) 2022년 12월 7일 구글 코리아가 발표한 2022 올해의 검색어 순위에 기후 변화(1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2위), 초단기 강수 예측(3위),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4위)에 이어 ‘이태원 사고’가 5위에 올랐다(우수민, 2022).

문화학자 Hall은 문화별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 바 있으며(1983, p. 61), 재난보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문화적 특징이 재난보도에서도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박재영 등, 2009; Choi et al., 1999; Morris & Peng, 1994). 언론보도의 기사제시와 읽기 과정에서 제목의 역할과 비중이 적지 않으며(이준호, 2015, p. 250) 제목이 기사의 정보 내용을 함축해 독자에게 한눈에 알기 쉽게 전달하고 관심을 집중시킨다는 점, 그리고 전자매체의 등장과 성장으로 이제 지면 매체보다 독자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뉴스에서 제목이 기사 선택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김선진, 2010, p. 288)에서 연구자는 기사 제목 분석이 유의미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번역학 내 맥락이론과 재난보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출발점으로 삼아 이태원 사고를 보도한 기사 제목에 나타나는 차이를 살펴보고 분석결과에 드러나는 언어적 차이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태원 사고라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국내외 언론 보도의 차이가 고맥락 문화권 언어(이하 고맥락 언어)인 한국어, 저맥락 문화권 언어(이하 저맥락 언어)인 영어의 차이에서 기인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궁극적으로 다음 두 가지의 연구 질문에 답해보고자 한다.

- 1) 이태원 사고를 보도한 국내외 언론사의 기사 제목에 언어적 차이가 나타나는가?
- 2) 분석결과를 기존의 고맥락 언어, 저맥락 언어의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위의 연구 질문을 탐구하기 위해 2장에서는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분석자료와 분석방법을 소개할 것이다. 4장에서 한·미 신문 기사 제목을 각각 정량분석과 정성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토론한 후 5장에서 본 연구의 함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2.1 맥락이론과 번역

1980년대에 번역학의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이 일어난 뒤 번역은 문화 간 중재 행위이며 번역사는 문화중개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고, 문화적 전환의 결과로 의사소통에 있어서 맥락에 기반한 이해를 증진해야 한다는 시각이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Katan, 2016, p. 365). 점차 번역학에서 문화 관련 연구는 대부분 문화특정요소와 그 번역 전략으로서의 자국화와 이국화, 번역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와 언어적 변이 양상에 대한 고찰에서 문화권별 맥락에 대한 연구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경향과 궤를 같이 하여 메시지 전달 수단으로서 언어의 기저에 깔린 문화적 차이에 대해 이해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번역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본 연구는 번역학에 문화적 접근을 접목해 언어적 차이를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부분은 Hall(1983)의 삼각형 모델(triangles)로 설명할 수 있다(p. 61). Hall은 고맥락 문화의 소통(HCC Culture: high context communication culture)에서는 일련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맥락(context)에 더 집중하지만 저맥락 문화의 소통(LCC Culture: low context communication culture)은 내용(text)에 더 집중한다고 둘의 차이를 구분하였다. Katan과 Taibi(2021)는 Hall의 맥락이론을 빌려 문화차이에 따른 정보 전달 방식을 분류하였다. 이들은 동일한 현상(reality)도 문화에 따라 다르게 그려질 수 있으며 고맥락 문화(HCC)와 저맥락 문화(LCC)가 서로 다른 방향을 지향(orientation)하기 때문에 언어 사용에 있어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pp. 291-294).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저맥락 문화와 고맥락 문화의 언론보도(Katan & Taibi, 2021, p. 281)³⁾

| 저맥락 소통의 강조 내용 (Low-context operating mode) | 고맥락 소통의 강조 내용 (High-context operating mode) |
|--|---|
| 내용(text) 사실(facts) 직접성(directness) 일관성(consistency) 핵심(substance) 규칙(rules) 단일시간형(monochronic) | 맥락(context) 관계와 감정(relationship/feelings) 간접성(indirectness) 유연성(flexibility in meaning) 사회·개인의 표면적 모습(social/personal appearance) 상황(circumstances) 다중시간형(polychronic) |

<표 1>의 내용을 종합하면 저맥락 문화의 소통 방식은 사실과 내용 전달에 집중하여 이를 직접적으로 일관성 있게 전달하는 반면 고맥락 문화에서는 주변 상황에 집중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와 감정을 중시하고 이를 간접적이고 유연하게 전달한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인류학에서 시작된 맥락이론은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차이를 논하기 위해 경영학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었으나(Katan & Taibi, 2021, p. 282), 최근 번역학 연구에도 활용되고 있다(마승혜와 김순영, 2021; 이화연과 성승은, 2023; 홍정민, 2013)

홍정민(2013)은 Hall의 맥락이론을 토대로 고맥락 문화인 한국어 기사와 저맥락 문화인 영어 기사의 서로 다른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분석하였다. 그 동안의 번역연구가 문화 특수 요소의 번역 전략에 대해 문화의 가장 바깥 표면 부분을 집중 연구한 반면, 이 연구는 각 문화의 기본 가정과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통해 문화의 가장 안쪽 부분을 살펴본 것에서 연구의의를 찾았다. 번역학 연구의 문화적 고찰 대상이 Hall(1976/1989)의 빙산 이론(Cultural Iceberg Model)의 수면 아래쪽으로 점점 더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일 것이다.

이화연과 성승은(2023)은 세계적 식품기업인 맥도날드와 버거킹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디자인과 특징을 맥락이론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각 문화 내에서 상호 공유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정보는 명시적으로 제공하지 않

3) 표의 한국어는 연구자의 번역임을 밝힌다.

는다는 특징과 미국 애플리케이션의 내비게이션에서 다양하고 상세한 메뉴와 정보를 제공한다는 저맥락 문화의 특징 등을 데이터를 통해 보여준다. 로컬리제이션과 맥락이론을 접목하여 연구에서 비교한 모바일 앱은 직접적인 번역 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번역학에서도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마승혜와 김순영(2021)은 맥락이론 중에서 감정표현에 집중하였다. Nida는 번역가의 중개가 필요한 문화적 요소를 5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는데(Nida, 1964) 이들은 그중 하나인 언어문화 범주를 더 세분화하여 ‘감정표현’을 추가하였다. 기쁨과 슬픔 등은 인간의 보편적 감정이지만 이를 표현하는 방식은 문화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을 눈여겨본 것이다(p. 89). 고맥락 문화에서는 감정을 절제하고 암시적이거나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반면 저맥락 문화는 명시적이고 직접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특징을 보이는데(Hall, 1976/1989, p. 93), 고맥락 문화에 해당하는 북한소설에서 사회주의 체제 하에 암시적으로 표현된 감정표현이 저맥락 문화에 해당하는 영어로 번역되는 과정을 추적하여 비교하였다. 언어표현, 특히 감정표현을 중심으로 맥락이론과 명시화 전략의 분석대상이 감정표현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연구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번역학 내 맥락이론 연구들은 하나의 대상을 바라봄에 있어 문화에 따라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고, 이는 다시 표현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와 궤를 같이하되 분석 텍스트의 범위를 보다 확장하였다. 이태원 사고라는 동일 사건 보도 양상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의 문화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번역 또는 편역된 기사가 아닌 각각 다른 언어로 쓰인 기사 제목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동·서양 언론사의 언어적 차이와 그 기저에 깔린 문화적 차이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2.2 번역학 내 재난보도 연구

재난보도 기사를 번역학적 관점에서 다룬 연구로 먼저 신진원(2014)은 한국과 미국 신문 사설의 평가어 체계를 살펴보았다. 미국 신문은 외부관찰자 시점에서 판단을 유보하고 덜 단언적 태도로 글을 전개한 반면 한국 신

문은 내부관찰자로서 사건과의 물리적·심리적 거리가 가까워 비난에 초점을 두었다고 분석하였고, 한국 신문은 사고의 책임을 가리고자 누구의 잘못된 지에 초점을 맞추는 행위 평가에 집중하는 반면 미국 신문은 사고 발생과 처리 과정을 객관적 입장에서 해설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리고 한국에서 발생한 세월호 사고라는 특정 사건에 대해 물리적·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한국 신문은 더 주체적 입장에서 사건을 기술하였으나 미국 신문은 사건을 둘러싼 현상을 객관적 태도로 기술하는 방식을 나타낸 것으로 보았다. 이 연구는 평가어의 출현 양상이 언어적·문화적 차이뿐 아니라 평가 대상과의 물리적·심리적 거리 차이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송연석(2015)은 세월호 사고를 보도한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 이하 NYT) 기사와 이에 대한 편역 기사를 분석하고 제목과 본문이 어떻게 번역되고 인용되었는지를 보았다. 이 연구는 외신 편역 기사가 유사인용, 숨은 인용, 전달동사 사용 등의 방법을 통해 프레임 효과를 만들어 편역자의 주관적 평가를 반영하고 독자에게 편역자의 목소리를 간접적으로 들려주는 전략으로 이용했다고 분석했다.

상기 선행연구 이외에 지금까지 번역학 분야에서는 재난보도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보다는 뉴스 관련 연구가 주를 이룬다. 외신 기사를 인용하거나(오미형, 2008) 편역한 뉴스텍스트를 다루는 연구 사례가 대표적이며(류스원, 2023; 송연석 2013; Schäffner, 2012), 연구방법으로는 비평적 담화 분석(강지혜, 2008b; 이상빈, 2018; Kim, 2013), 프레이밍(박은숙과 김가희, 2014; Liu, 2017; Vald on, 2014), 이데올로기(신혜정, 2008; Song, 2017; Vuorinen, 1997) 등의 분석틀이 주를 이룬다. 이들 연구는 뉴스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인용과 편역이라는 현상에 의해 어떻게 원문 기사가 게이트키퍼(gatekeeping), 즉 기사 집필자가 의도한 방향으로 변하여 독자의 이해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다룬다.

번역학에서 본 연구와 유사하게 내·외신 기사의 제목을 비교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박은숙과 김가희, 2014; 송연석, 2015; 최경희, 2022), 분석대상과 분석방법에 다소 차이를 보이나 관통하는 기본 전제는 내신 기사와 외신 기사 사이에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는 점이다. 박은숙과 김가희(2014)는

2011년 9월 한국에서 발생한 미군 성폭력 사건 보도 양상에 차이가 있다는 가정하에 기사 제목에 나타난 차이와 의미를 살피고 기사 본문에서 내신과 외신의 프레임과 내러티브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한국 신문기사 제목은 기능적 측면에서 순기능을 한 반면 외신에서는 역기능을 수행했는데, 동일 사건에 대한 내·외신 간 상이한 내러티브의 이유를 이데올로기와 권력관계에서 찾았다. 최경희(2022)의 연구에서는 국내 신문기사 제목과 영어권 신문기사 제목의 문장부호를 비교한 결과 문장부호 종류에 상당한 차이점이 나타났고 한국어 기사가 문장부호 사용 빈도가 높았는데, 한국어와 영어권의 기사 작성 관습이 다르지만 기사 한영번역과 국내 영자신문 기사 작성에 있어서 문장부호 번역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3 문화차이와 재난보도

동양과 서양의 뉴스 보도 양상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는 국내외에서 번역학 이외의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어 왔다. 곡로(2008, p. 199)는 한·미 주요 신문에서 나타나는 중국 관련 뉴스 주제와 언어표현을 이중 코퍼스언어학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중국 관련 뉴스를 보도할 때 미국 신문이 정보 전달 위주 보도를 하는 데 반해 한국 신문은 편집자의 주관적 견해와 태도 등의 유도기능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등 양국의 보도 특징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문화 차이에 따른 언론 보도의 전달 방식의 차이는 재난보도에서도 나타난다(4), 이러한 차이는 특히 동양과 서양의 재난보도에서 두드러진다.

-
- 4) 재난보도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재난과 재난보도의 정의를 살펴보면, 재난은 특정 시점에 특정 지역에 발생한 인재 또는 자연적 재해로 정의할 수 있다. 재난은 인적·물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데, 재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언론의 활동을 재난보도라 일컫는다(유승관과 강경수, 2011, p. 143). 재난은 그 발생 원인과 이후 나타나는 현상에 따라 자연적, 기술적, 사회적 위험 등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각의 원인에 따라 추후 언론보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상황적 특징을 갖고 있다(김경안과 유충, 1997). 재난 상황에서 언론보도의 역할은 단순히 재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재난 상황에서 피해 확대를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돕는 예방의 역할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백성기와 이옥기, 2012, p. 11). 재난보도와 관련하여 언론의 역할을

Choi 등(1999)의 연구는 동서양의 사고습관 차이가 사건의 원인 진단과 책임소재를 밝히는 과정에서 차이를 야기한다고 분석하였다. 동양인은 책임소재에 있어서 사회적 맥락에 집중하는 반면 서양인은 관찰 대상 자체에 주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사건사고를 보도하는 뉴스 기사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문화심리학자 Morris와 Peng(1994)은 뉴스에서 나타나는 동양인과 서양인의 사고 귀인(attribution) 패턴에 차이가 있음을 분석하기 위해 동일한 대학 내 총기사건에 대해서 다룬 두 언론사 기사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미국 언론사 NYT는 중국인 범인의 심리적 약점, 성향의 문제점, 평소의 태도와 같은 개인적 측면을 부각한 데 반해 중국계 영자신문인 월드 저널(World Journal)은 범인의 인간관계, 중국 사회의 학력 중시 압박, 충기를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미국 사회의 문제점과 같은 사회적 이유를 부각해 보도한 점을 언급하며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한 귀인 패턴의 차이를 제시했다.

언론학 연구인 박재영 등(2009, p. 286) 또한 미국 금융위기, 복핵 이슈, 버지니아 공대 총기사건을 다룬 기사에서 미국 기사는 특정 개인을 거론하거나 겨냥하였고 개인 언행을 중심으로 전체적 논지를 전개한 반면 한국 기사는 개인보다 사회, 국가, 세계와 같이 포괄적 접근을 하고 사건 관련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논지를 전개함을 보여주었다. 연구결과 미국 기사가 개인 중심적 서술을 하고 한국 기사는 공동체 중심적 서술을 하는 기존의 문화심리학적 논지는 특히 버지니아공대 총기사건 보도에서 두드러졌는데 그 이유에 대해 예기치 못한 사건 발생의 상황적 자극에 대해 필자들이 평소의 습관적 반응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한다.

상기 연구들과 같이 재난보도에서 나타나는 동양과 서양의 기사 논조 차이는 주로 언론학 분야에서 문화심리학을 분석의 틀로 사용해 연구해 왔으며 보도 양상을 논하여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문화 번역의 시각에서 이태원 사고라는 동일 사건에 대한 보도 양

살펴보면 정보전달 뿐만 아니라 국민과 사회의 회복을 꾀하는 동시에 여론을 형성하는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김태원과 정정주, 2016, p. 203; 유승관과 강경수, 2011, p. 143; 이연, 2010; Gamson & Modigliani, 1989, p. 2; Pan & Kosicki, 1993, p. 69).

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번역학뿐 아니라 문화심리학, 언론학 등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동서양 간의 언론보도 양상 차이점이 한국과 미국의 이태원 사고 보도 기사에서도 나타날 것을 가정하였다. 그러나 제목 텍스트의 일부 특정 요소가 아닌 전체 제목에서 사용한 언어에 차이점이 있는지를 번역학의 기존 주된 분석의 도구였던 비평적 담화분석, 프레이밍 이론이 아닌 문화적 관점에서 맥락이론을 바탕으로 살펴본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두고자 한다. 이를 통해 뉴스 제목에 나타난 언어표현의 차이를 통해 한국과 미국에서 이태원 사고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설명해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이제까지 번역학에서 뉴스텍스트 연구가 번역 또는 편역된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했던 것에서 확장하여 각각 다른 언어로 쓰인 기사 제목 원문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동·서양 언론사의 언어적 차이와 그 기저에 깔린 문화적 차이를 들여다볼 것이다.

3. 연구 방법

3.1 분석자료

국내에서 뉴스 기사 번역 연구는 2010년대 중반 이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헤드라인 분석이 연구 키워드 빈도수를 볼 때 적극적으로 연구되는 분야이다(정나영과 이지환, 2022, p. 1506). 기사 제목은 보도내용 전체를 요약하거나 함축하여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기사 전체 내용의 분위기를 표현하거나, 기사의 중요성을 암시하거나, 독자의 관심을 끌어내 본문을 읽게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강지혜, 2008a, p. 8). 다시 말해 기사 제목은 해당 기사에 이름을 명명하는(naming) 메타텍스트(meta-text)로서(Iarovici & Amel, 1989, p. 443) 보도내용에 정체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독자들이 기사를 해석할 수 있도록 일련의 틀(frame)을 제공하게 된다(Goffman, 1974, p. 4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사 제목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이태원 사고 관련 국내외 언론사의 기사 제목에 언어적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

다. 이태원 사고 관련 보도 기사의 제목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국내외 대표 일간지를 선택해 특정 기간의 기사 제목을 취합한 뒤 2인의 공동 연구자가 각자 항목별로 1차 분류하였고, 함께 논의하여 합의를 이룬 결과를 토대로 정량분석을 수행하였다.

국내 일간지는 규모와 판매 부수를 고려하여 보수 성향과 진보 성향의 대표 언론사인 조선일보와 한겨레를 선택하여 이념 차이가 연구결과의 변수가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였다. 해외 일간지는 사회적 영향력과 위상이 높아 미디어연구에서도 널리 사용되는(송연석, 2015, p. 67) NYT와 워싱턴포스트(The Washington Post, 이하 WP)를 우선 선택하였다. 이후 언론사 이념 차이에 따른 편향성의 우려와 한국어 대비 영어 기사수가 적은 점을 고려하여 로스앤젤레스 타임스(Los Angeles Times, 이하 LAT), 월스트리트저널(The Wall Street Journal, 이하 WSJ), 워싱턴타임스(The Washington Times, 이하 WT), USA 투데이(USA Today, 이하 UT)의 4개 언론사 기사를 추가하여 진보 성향 언론사 3사, 보수 성향 언론사 3사의 총 6개사 기사를 분석하였다.

세월호 참사 보도내용을 연구한 김태원과 정정주(2016, p. 206)는 관련 기사를 보도내용과 성격을 토대로 3단계로 분류하는데, 1단계는 사고 중점 보도 단계, 2단계는 책임 공방 분석 단계, 3단계는 정치적 담론화 단계이다. 이태원 사고에서는 사건 보도 초기부터 1단계 사고 중점 보도와 2단계 책임 공방 분석 내용이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1월 2일 이후로는 국내 언론사 보도내용이 3단계인 정치적 담론화로 전환되고 외신의 보도양이 급격히 줄어든 점을 볼 수 있었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2022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국내외 언론사에서 재난보도 1단계부터 3단계까지의 특성이 모두 나타나며 유의미한 수치의 비교분석 자료가 확보된다고 판단하고 5일간의 기사 제목을 모두 취합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어 기사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 사이트 빅카인즈(Big Kinds)에서 검색어 ‘이태원’으로 기사제목을 추출한 후 본 연구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기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⁵⁾. 영어 기사의 경우는 각 언론사 홈페이지에

5) 기사 내용이 이태원 사고와 관련 없는 기사, 연예인을 포함한 개인의 의견이나 추모 기사,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취소 안내, 유사한 해외 사고를 소개하는데 이태원 사고를 인용한 기사 제목은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서 직접 ‘Itaewon’을 검색하여 추출하였다. 조선일보, 한겨레, NYT, WP, LAT, WSJ, WT, UT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기사로 선정하여 최종 분석대상으로 삼은 기사 수는 <표 2>와 같다.

표 2
분석대상 한국어 기사 제목과 영어 기사 제목 수치

| 날짜 | 한국어 기사 수 | 영어 기사 수 |
|---------|----------|---------|
| 10월 29일 | 2 | 7 |
| 10월 30일 | 186 | 27 |
| 10월 31일 | 129 | 10 |
| 11월 01일 | 140 | 10 |
| 11월 02일 | 134 | 5 |
| 총합계 | 591 | 59 |

<표 2>는 분석대상 기간 각 날짜별 한국어 기사와 영어 기사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해당 기사의 제목에 대해 정량분석과 정성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결과는 4장에서 제시할 것이다.

3.2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언론사의 이태원 사고 보도 기사 제목에 나타나는 언어적 차이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문화적 차이를 설명하는 맥락이론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는 것이다.

Halliday와 Matthiessen(2014, p. 216)은 문화를 물질(material: the doing), 정신(mental: the sensing), 관계(relational: the being)로 설명하였는데, 물질의 세부 내용은 행동(doing, acting, behaving)과 변화(creating, changing), 정신은 목격(seeing), 감정(feeling), 의견(thinking, saying) 등이며, 마지막으로 관계는 동일시(identifying), 책임귀인(attributing) 등으로 구성된다.

Katan과 Taibi(2021, pp. 291-294)는 언어가 문화를 어떻게 표현해내는지 연구하기에 앞서 행위(doing)와 정체성(being) 사이의 연속선상에 나타나는 양극성(polar orientation)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논리적 단계 모델

(Logical Levels Model)을 토대로 문화의 심층 단계를 정리하였다. 표면에 드러나는 첫 번째 단계는 환경 또는 관찰 가능한 행위(behavior)이고, 두 번째 단계는 내면적으로 반응하고, 자각하고, 일반화하는 기능적 측면의 가치(values) 또는 신념(beliefs)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타인과의 경험적 측면에서 이루어진 정체성(identity) 단계이다. 이러한 단계는 being 방향으로 내려갈수록 중요도가 높아진다고 설명한다.

Katan과 Taibi(2021)의 논리적 단계 모델의 이해를 돕기 위해 Halliday(1994)의 과정 모델과 하위 항목을 아래 <표 3>에서 비교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두 모델을 바탕으로 한국어와 영어 기사 제목 내용의 요소를 분석하는 틀로 What, How, Who/Why의 항목을 만들었다. 본 연구의 분석틀은 Halliday와 Mattiessen(2014), Katan와 Taibi(2021)에서 착안하였으나 분석 항목을 기존 학술어가 아닌 새로운 명칭의 항목으로 재구성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기사 제목 분석에서는 Halliday의 프로세스 분석방법과 달리 해당 기사 제목을 구성하는 어휘가 품사와 관계없이 독자에게 직관적으로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지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국내외 언론사의 기사 제목에 나타난 언어적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최종 분석틀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본 연구의 분석틀

| 과정(Halliday) Hallidayan process | 논리적 단계 (Katan & Taibi) Logical Level | | 분석틀 | |
|------------------------------------|--|--------------------------|---|-------------------------------|
| 물질 (Material: the doing) | 행위(Behavior) | doing ↑ ↓ being | What (actions and changes) | 사건과 행동: 무엇이 일어났는가? |
| 정신 (Mental: the sensing) | 기능·가치·신념 (Capabilities/Values/Beliefs) | | How (emotion and feelings) | 감정: 어떻게 묘사되었는가? |
| 관계 (Relational: the being) | 정체성(Identity) | | Who/Why (identifying and attributing) | 정체성과 원인: 누가/왜 그렇게 되었는가? |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 싶은 대상은 국내외 재난보도의 기사 제목에 사용된 어휘 또는 표현이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묘사하는지, 사람들의 감정을 나타내는지, 관계적 측면을 드러내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사건과 행동을 기술하는 경우 그 자체로 What의 항목으로 분류하고,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How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은 동사의 종류에 따라 분류 항목이 달라지는 Halliday의 프로세스 분석과 달리 보다 단순하게 어휘와 표현의 전달 내용을 분석한 접근법임을 밝힌다. 예를 들어, ‘At least 151 dead, many injured’라는 기사 제목의 경우 Halliday의 분류는 이를 ‘relational process’로 분류하여 ‘Who/Why’로 분류할 것이나, 본고의 분석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있었다는 사실로 보아 ‘What’으로 분류하였다. 다음 <표 4>를 통해 본 연구의 분석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다.

표 4
본 연구의 분석 예시

| 기사 제목 | What | How | Who/Why |
|--|------|-----|---------|
| 이태원 압사사고 사망자 발생 서울 시내 소방대원 동원 (조선일보 2022.10.29.) | ○ | | |
| Here’s what causes crowd crushes like the deadly one in Seoul (WP 2022.10.30.) | | ○ | ○ |
| South Korea Halloween Tragedy Claims Mostly Young Revelers (WSJ 2022.10.30.) | | ○ | ○ |
| 울부짖은 이태원 경찰관 “사람이 죽어요, 제발 돌아가세요” (한겨레 2022.11.1.) | | ○ | |

‘What’ 항목은 사실과 정보의 전달뿐만 아니라 행동을 묘사하고, ‘How’ 항목은 감정 또는 의견을 전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Who/Why’ 항목은 하위에 사고 피해자와 보도내용의 독자 간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동일시를 내용으로 하는 ‘Who’ 항목과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의 관계를 연결하는 책임귀인을 내용으로 하는 ‘Why’ 항목의 두 가지 하위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기사 제목에 분류 항목 1가지만 나타나는 기사와 2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기사가 있어, 서로 다른 분석 항목이 등장한 경우 중복으로 계수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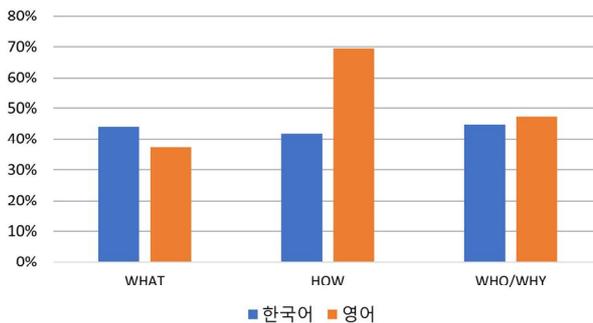
동일한 행동이나 사건에 대해 문화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는 행동 이면의 해당 문화의 가치관, 신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Katan과 Taibi(2021)의 논리적 단계 중 기능·가치·이념과 정체성 단계, Halliday(1994)의 정신과 관계 부분에 해당한다.⁶⁾ 궁극적으로 기사 제목에 나타난 언어적 차이가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How’ 항목과 ‘Who/Why’ 항목에 주목하였다.

4. 분석 및 논의

4.1 정량분석

먼저 분석대상 기간 전체인 2022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5일 동안 한국 신문사와 미국 신문사가 보도한 이태원 사고 기사 제목 사이에 정량적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그림 1
언어별 기사 제목 분류



6) 대표적인 문화 이론인 Hall(1976/1989)의 빙산 이론(Cultural Iceberg Model)에서는 수면 아랫부분에 해당한다. 저자별로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지칭하는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림 1>은 분석대상 기간 전체 동안 한국어 기사와 영어 기사의 항목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로축은 What, How, Who/Why의 세 항목이며 한국어 기사는 파란색, 영어 기사는 주황색으로 표시하였다. 분석대상 기사의 절대 수치에 있어서 한국어 기사와 영어 기사 간 차이가 있으므로 세로축은 수치가 아닌 각 언어별 분석대상 기사 전체에서의 비율로 나타났다. 5일 전체의 정량분석 결과 한국어 기사는 행동을 나타내는 What, 감정을 나타내는 How, 관계를 나타내는 Who/Why의 세 항목이 고른 분포를 보인 반면 영어 기사는 세 항목 중 How 항목의 양이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났다.

표 5
언어별 항목 비율과 빈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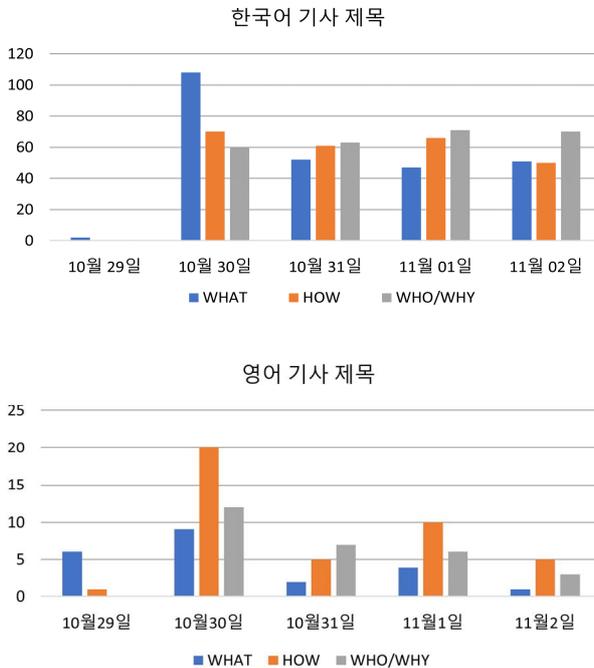
| | What | How | Who/Why |
|-----|------------|------------|------------|
| 한국어 | 44% (260개) | 42% (247개) | 45% (266개) |
| 영어 | 37% (22개) | 69% (41개) | 47% (28개) |

<표 5>는 분석대상 기간 전체에서 한국어 기사 제목과 영어 기사 제목의 항목별 비율과 빈도수를 나타낸 것이다. 앞서 연구방법에서 언급했듯이 하나의 제목에 두 개 이상의 항목이 있는 경우 대표 항목이 아닌 각 항목을 계수하였으므로 각 언어 당 세 개 항목을 합한 값이 100%를 넘었다. 한국어 기사 제목에서는 What 항목이 44%, How 항목이 42%, Who/Why 항목이 45%로 세 항목의 출현 비율이 비슷한 반면, 영어 기사 제목에서는 각 항목이 순서대로 37%, 69%, 47%를 차지하였다.

연구자는 저맥락 문화권의 영어 기사는 정보 전달 위주라는 선행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영어 기사 제목에서 What 항목의 비중이 두드러지게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오히려 감정을 나타내는 How 항목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사고 당사자와 독자,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Who/Why 항목의 경우 고맥락 문화권인 한국어 기사에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두 언어의 기사에서 동일한 비율로 나타난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해당 항목은 한국어 기사와 영어 기사에서 각각 45%와 47%를 차지하여 통계상 양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내용 면에서는 차이가 관찰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정성분석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그림 2
날짜별 기사 제목 분류⁷⁾



<그림 2>는 각 언어별 기사 제목의 개별 항목을 분석대상 기간 중 날짜별로 분류한 것이다. 가로축은 분석대상 기간인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의 각 날짜이고 세로축은 기사의 수이며 막대그래프에서 파란색은 What 항목, 주황색은 How 항목, 회색은 Who/Why 항목을 나타낸다.

한국어 기사 제목의 경우 사고 직후에는 사고 내용 자체를 보도하는 What 항목이 다수를 차지했다가 급속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며, How 항목

7) 날짜에 따라 언어별로 기사 항목의 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기 위해 <그림 2>에서는 세로축을 각 항목의 빈도수로 나타냈다.

도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감소하고 Who/Why 항목이 계속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영어 기사 제목에서는 How 항목과 Who/Why 항목이 사고 직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분석대상 기간 전체의 정량적 측면을 본 <그림 1>에서는 How 항목에서만 차이가 두드러졌으나 <그림 2>에서 5일간 각 날짜의 항목을 비교했을 때는 What, How, Who/Why의 모든 항목에서 한국어 기사 제목과 영어 기사 제목 사이에 다른 형태로 변화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정량적 분석결과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말하는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의 문화적 차이에 따른 기사문 성격의 차이, 즉 동양의 서술은 보다 감정표현적, 관계중심적이고 서양의 서술은 정보 전달 위주라는 점에서 벗어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기사 제목의 내용을 정성분석한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4.2 정성분석

본 장에서는 이태원 사고 관련 한국어 기사 제목과 영어 기사 제목을 정성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한다. 기사 제목에 나타난 What, How, Who/Why 세 항목을 사례별로 살펴보고 한국어 기사 제목과 영어 기사 제목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차이가 나타난 배경은 무엇인지 알아볼 것이다. 연구자는 분석대상 기사 제목 전체를 정성분석 하였으며 본고에서는 각 항목의 대표 사례만을 제시하였다.

먼저 각 항목의 개별 사례를 한국어 기사와 영어 기사에서 보면 아래와 같다. 예시에서 한국어 기사는 KOR, 영어 기사는 ENG로 표기하고 한국어 기사의 What, How, Who/Why 항목은 각각 KOR(WT), KOR(H), KOR(WO)/KOR(WY)로, 영어 기사의 What, How, Who/Why 항목은 각각 ENG(WT), ENG(H), ENG(WO)/ENG(WY)로 표기하였고, 기사 제목에서 각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에 밑줄로 표시하였다.

<예시 1> What 항목의 한국어 기사 제목과 영어 기사 제목 사례

| | |
|---------|--|
| KOR(WT) | 이태원 압사사고 <u>사망자 발생</u> 서울시내 <u>소 소방대원 동원</u> (조선일보 2022.10.29.) 윤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서 서울청사로 <u>이동해</u> <u>중대본 회의 주재</u> (한겨레 2022.10.30.) 진보 청년 단체 “오늘 저녁 ‘6시 34분’ 이태원으로 모이자” <u>침묵시위 예고</u> (조선일보 2022.11.2.) |
| ENG(WT) | Halloween Crowd Surge <u>Leaves Dozens Dead</u> in Seoul (NYT 2022.10.29.) More than 100 <u>injured</u> after Halloween crowd surge in Seoul (WT 2022.10.29.) South Korea <u>declares national mourning period</u> as at least 151 <u>killed</u> in Halloween crowd crush (WP 2022.10.30.) |

<예시 1>은 한국어 기사 제목과 영어 기사 제목의 What 항목을 나타낸 것이다. 한국어 기사 제목을 보면 2022년 10월 29일자 조선일보 기사 제목에서 ‘사망자 발생’, ‘소방대원 동원’과 같이 일어난 일과 행동을 기술하여 사건의 객관적 사실과 정보를 전달한다. 영어 기사 제목도 마찬가지로 2022년 10월 29일자 WT의 ‘More than 100 injured’와 같이 사고에 대한 정보를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예시 2> How 항목의 한국어 기사 제목과 영어 기사 제목 사례

| | |
|--------|---|
| KOR(H) | 수십명 <u>연쇄적으로 넘어졌다</u> ” 이태원 압사 현장 <u>아비규환</u> (조선일보 2022.10.30.) “ <u>별일 없는 거지?</u> ” 이태원 참사 소식에 <u>밤새 애타우다</u> (한겨레 2022.10.30.) <u>울부짖은</u> 이태원 경찰관 “사람이 죽어요, 제발 돌아가세요” (한겨레 2022.11.1.) |
| ENG(H) | Witnesses describe <u>the ‘hell’</u> inside Seoul’s deadly crowd surge (LAT 2022.10.30.) The crowd crush was <u>like a ‘tsunami wave.’</u> (NYT 2022.10.30.) South Koreans <u>Rattled by Grisly Footage</u> of Crowd Crush (WSJ 2022.11.1.) |

<예시 2>의 한국어 기사 제목과 영어 기사 제목 중 밑줄로 표시한 How

항목을 보면 2022년 10월 30일자 조선일보의 ‘아비규환’, 10월 30일자 LAT의 ‘the hell’, NYT의 ‘like a tsunami wave’와 같이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사고의 광경을 시각적으로 묘사하듯 전달하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2022년 10월 30일자 한겨레의 ‘밤새 애태우다’, 11월 1일자 WSJ의 ‘Rattled by Grisly Footage’와 같이 감정과 느낌을 나타내는 어휘를 기사 제목에 사용하였다.

앞서 정량분석 결과에서 언급했듯이 영어 기사 제목에서 What 항목보다 How 항목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저맥락 문화권 언어의 기사는 객관적 정보 전달을, 고맥락 문화권 언어의 기사는 기자의 가치 판단이나 감정을 반영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홍정민, 2013; Katan & Taibi, 2021)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How 항목은 감정을 전달하는 만큼 평가어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동일한 어휘의 반복을 피하고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는 영어의 특성과 함께 뉴스 보도에서 평가어가 한국어 텍스트보다 영어 텍스트에 많이 출현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마승혜, 2011, p. 79)를 고려할 때 한국어 기사보다 영어 기사에서 How 항목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을 일견 당연한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에 대한 연구(신진원, 2014)에서는 한국 신문이 미국 신문보다 평가어를 높은 비율로 사용한 것이 나타났는데 이를 해당 사건이 특정 시기 한국 내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한국 신문이 보다 주체적 입장에서 사건을 기술한 반면 미국 신문은 외부관찰자 시점에서 기술했기 때문에 대상과의 심리적·물리적 거리에 따라 서술 양상이 달라졌다고 설명한다.

이와 달리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이태원 사고를 보도한 한·미 양국 기사 제목의 경우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영어 기사 제목에서 감정을 전달하는 How 항목이 한국어 기사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아래 <예시 3>에서 제시된 Who 항목과 연결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예시 3> Who 항목의 한국어 기사 제목과 영어 기사 제목 사례

| | |
|---------|---|
| KOR(WO) | “내 친구, 내 자식 숨진 것 같아”... <u>외국인 추도객도</u> 눈물 (조선일보 2022.10.31.) “퇴원하면, 한강에서 라면 먹자” 이태원에서 떠난 <u>16살의 약속</u> (한겨레 2022.11.2.) “이태원 간 딸 숨졌다는 친구 전화 대체 어느 병원인가요” (한겨레 2022.10.30.) |
| ENG(WO) | For one <u>family</u> , a ringing phone and hope that <u>their only daughter</u> was not on the list of the dead. (NYT 2022.10.30.) 'Like a hell': <u>Relatives search for loved ones</u> in Seoul after Halloween crowd surge leaves 153 dead (UT 2022.10.30.) <u>American student</u> killed in Seoul was on 'first big adventure,' <u>father</u> says (WP 2022.10.31.) |

<예시 3>은 관계와 정체성을 나타내는 Who/Why 항목 중 동일시, 즉 독자과 사상자·유가족을 동일시하는 어휘를 사용한 Who 항목의 사례이다. 한국어와 영어 기사 제목에서 유사하게 ‘내’, ‘친구’, ‘자식’, ‘가족’, ‘딸’, ‘family’, ‘daughter’, ‘father’ 등의 어휘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반적으로 신문을 읽는 연령층이 성인임을 고려할 때 ‘자식’, ‘16살’, ‘딸’, ‘family’, ‘their only daughter’, ‘student’, ‘father’ 등의 어휘는 독자 자신의 가족과 자녀, 나이 어린 친지를 연상시켜 유가족의 마음에 보다 쉽게 감정적으로 동화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2022년 10월 31일자 조선일보의 ‘외국인 추도객도’와 같은 문구는 외국인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국적에 관계없이 해당 사고에 대해 애도의 감정을 표현하고 동일시하는 모습을 서술하고 있다.

이처럼 사상자와 독자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Who 항목에서 정성분석 결과 한국어 기사와 영어 기사에서 유사한 어휘가 나타난 배경은 이태원 사고가 재난의 발생 원인과 사건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이례적인 사고였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재난은 발생 원인에 따라 자연적 위험, 기술적 위험, 사회적 위험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김경안과 유충, 1997), 이태원 사고의 경우 기술적 위험과 사회적 위험의 특징이 함께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 피해자와 사상자가 있었다는 점에서 외신 또한 온전히 관망하는 입장

보다는 참여자적 입장이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즉 동일하게 한국 내에서 일어난 재난이지만 세월호 사고의 경우 한국 신문은 내부관찰자, 미국 신문은 외부관찰자라는 시점이 명확히 구분되었으나 이태원 사고의 경우 사건에 대한 미국 언론의 물리적 거리는 멀었지만 심리적 거리는 보다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는 한국어 기사에서 관계를 나타내는 Who/Why 항목이 영어 기사 대비 자주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정량 분석 결과 두 언어 기사에서 유사한 비율로 나타난 점도 위의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예시 4> Why 항목의 한국어 기사 제목과 영어 기사 제목 사례

| | |
|----------------|--|
| <p>KOR(WY)</p> | <p>일어나선 안 될 참사,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었다 (한겨레 2022.10.30.) ‘11명 사망’ 상주 사고 뛰어넘은 참사 이태원에 ‘안전대책’ 있었다 (한겨레 2022.10.30.) 한국 재난 대비에 人波사고 대책이 빠져 있다 (조선일보 2022.10.31.)</p> |
| <p>ENG(WY)</p> | <p>Halloween Crowd Crush in Seoul Was ‘<u>Absolutely Avoidable</u>,’ Experts Say (NYT 2022.10.31.) <u>Criticism over South Korea Halloween deaths: ‘No one was looking after pedestrian safety’</u> (UT 2022.10.31.) ‘<u>Manmade disaster</u>’: Officials <u>criticized over</u> Seoul deaths (WT 2022.10.31.)</p> |

<예시 4>는 기사 제목 중 사고의 원인을 찾는 책임귀인의 내용을 포함한 Why 항목의 사례를 보여준다. 한국어와 영어 기사 제목을 보면 ‘대책’,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었다’, ‘avoidable’, ‘manmade disaster’ 등의 어휘를 사용하였다. 10월 30일자 한겨레 기사 제목에서는 ‘안전대책 있었다’라는 문구를 사용해 사고 예방 대책이 부족했음을 지적하며, 2022년 10월 31일자 NYT에서도 전문가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Absolutely Avoidable’, 즉 이태원 사고가 ‘분명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음을 언급하며 사고와 원인을 연결 지었다.

위의 예시에서 설명한 항목들은 분석대상 기간 중 후반부로 갈수록

How 항목과 Who 항목, How 항목과 Why 항목이 함께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는데 아래 <예시 5>와 같다.

<예시 5> 기사 제목 내 여러 항목이 혼합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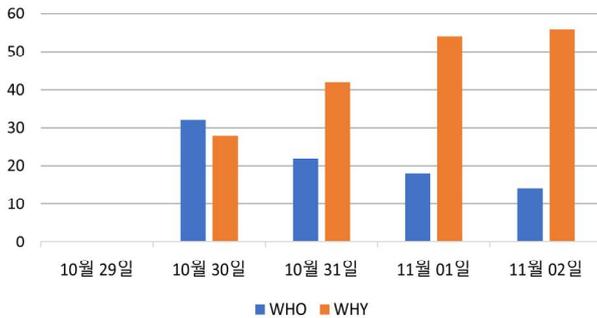
| | | |
|-----|--|--------------|
| KOR | 이태원 도로 곳곳서 심폐소생술 악몽이 된 핼러윈 (한겨레 2022.10.30.) | What+How |
| | 이태원의 악몽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 해당 안 된다? (한겨레 2022.10.30.) | How+Why |
| | 보행자 일방통행 동선 통제했더라면” 2주 전 축제 댄 했다 (한겨레 2022.10.30.) | What+Why |
| | 내 또래, 너무 마음 아파서”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추모 발길 (조선일보 2022.10.30.) | How+Who |
| ENG | ‘South Korea Halloween <u>Tragedy</u> Claims Mostly <u>Young Revelers</u> (WSJ 2022.10.30.) | How+Who |
| | <u>American student</u> killed in Seoul was on ‘ <u>first big adventure</u> ,’ <u>father</u> says (WP 2022.10.31.) | How+Who |
| | <u>Pleas for Help Went Unheeded</u> for Hours in <u>Deadly</u> South Korea Crush (NYT 2022.11.1.) | How+Why |
| | Investigators <u>raid offices</u> of Seoul police and others over Halloween crowd <u>disaster</u> (LAT 2022.11.2.) | What+How+Why |

<예시 5>의 기사 제목 중 2022년 10월 30일자 조선일보 기사 제목과 같이 ‘내 또래’라는 어휘를 사용해 독자를 사상자와 동일시하게 하면서 ‘너무 마음 아파서’라는 감정을 나타내는 어휘를 함께 사용하면 독자의 감정을 이입시켜 동일시 효과를 더 확대할 수 있다. 영어 기사 제목에서도 이와 같이 독자를 사상자 및 가족과 동일시하게 하는 Who 항목,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찾는 어휘인 Why 항목과 감정을 표현하는 How 항목이 함께 사용된 점을 볼 수 있다. 10월 31일자 WP 기사 제목에서는 ‘American student’, ‘father’를 사용해 독자를 사상자 및 유가족과 동일시하게 하면서 ‘first big adventure’라는 비유 표현을 함께 사용해 사상자에 대해 안타까운 감정을 더욱 불러일으킨다. 11월 1일자 NYT 기사 제목에서도 ‘Pleas for Help Went Unheeded’라는 구절로 사고에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책임 소재를 찾는 동시에 ‘Deadly’라는 어휘를 사용해 사고의 심각성을 나타내 사고 원인 및 책임 소재 파악의 중대함을 독자에게 더 깊게 상기시키는 역할

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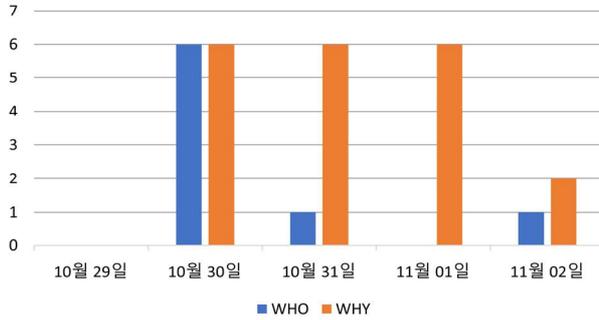
다음에서는 정량분석 결과 한국어 기사 제목과 영어 기사 제목이 각각 45%, 47%로 거의 같은 비율로 나타났던 Who/Why 항목의 언어별 차이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3
한국어 기사 제목의 Who/Why 항목 일별 수치



<그림 3>은 한국어 기사 제목의 Who/Why 항목을 Who(동일시)와 Why(책임 귀인)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각 보도일별 수치를 나타낸 것이다. 파란색 막대는 Who 항목, 주황색 막대는 Why 항목이다. 사고 다음 날인 2022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4일간의 양상을 보면 처음에는 수치가 더 높았던 Who 항목은 점차 감소하고 Why 항목은 점차 증가하여 11월 2일에는 두 항목이 양적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이를 통해 한국어 기사 제목에서는 사고 후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책임 귀인을 나타내는 어휘가 증가하여 선행연구에서 말하는 재난 보도의 패턴과 유사하게 보도가 진행됨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4
영어 기사 제목의 Who/Why 항목 일별 수치



<그림 4>에서는 영어 기사 제목의 Who/Why 항목을 위의 <그림 3>과 마찬가지로 Who(파란색 막대)와 Why(주황색 막대)로 구분해 일별 수치를 제시하였다. 사고 다음 날인 2022년 10월 30일에는 Who와 Why의 수치가 동일하지만 10월 31일부터는 Who 항목이 현저히 감소하는 반면 Why는 10월 31일, 11월 1일에도 지속적으로 동일한 비율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한국어 기사 제목에서는 Why가 분석대상 기간 중 꾸준히 증가하나 영어 기사 제목에서는 11월 2일 이후에는 외신에서 사고 보도가 거의 없어 Why가 나타나지 않은 데에서 사고 당사국과 제3국의 보도 패턴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치와 증가·감소 양상 이외에도 양측 기사 제목에서 사용한 어휘에도 차이가 나타난다. <예시 6>은 한국어 기사 제목과 영어 기사 제목이 Why 항목에서 주로 어떤 어휘를 사용하는지를 보여준다.

<예시 6> 기사 제목 내 여러 항목이 혼합된 사례

| | |
|-------------|---|
| KOR (WY) | 책임 언급 없는 용산구청장 “영혼 없는 사과보다 대책 파악부터” (한겨레 2022.10.30.) 與 박형수 “이상민 장관 대국민 사과하시라” (조선일보 2022.11.1.) 오세훈 “이태원 사고에 무한 책임 느껴... 깊은 사과” (조선일보 2022.11.1.) 행안장관 서울시장 경찰청장 용산구청장 일제히 사과 (조선일보 2022.11.1.) |
|-------------|---|

| | |
|----------|---|
| | 윤 대통령 사과하고 이상민 경찰 수뇌부 경질하라 (한겨레 2022.11.2.) |
| ENG (WY) | <p>'Here's what causes crowd crushes like the deadly one in Seoul (WP 2022.10.30.)</p> <p>How generational gap may have helped lead to South Korea's Halloween tragedy (LAT 2022.10.30.)</p> <p>Halloween Crowd Crush in Seoul Was 'Absolutely Avoidable,' Experts Say (NYT 2022.10.31.)</p> <p>South Korean Police Probe Cause of Halloween Crowd Crush (WSJ 2022.10.31.)</p> <p>Was Seoul's deadly Halloween crush preventable? (WP 2022.11.1.)</p> |

<예시 6>의 기사 제목을 보면 한국어 기사 제목의 경우 주로 '책임', '사과'가 신문의 이념적 편향과 관계없이 고루 나타나며 사고의 원인 규명과 함께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해야 한다는 논조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영어 기사 제목의 경우 'what causes', 'lead to', 'avoidable' 등 사고 원인 자체, 즉 사고가 일어난 경위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는지에 보다 집중하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고 원인을 찾는 Why 항목 내에서 한국어 기사 제목과 영어 기사 제목간의 사용 어휘가 다르다는 점은 양국의 보도에서 문화적 차이를 드러내는 지점이다.

Why 항목에서 국내외 기사가 일별 보도 패턴과 함께 내용 측면에서도 다소 차이가 있었음을 정성분석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한국어 기사의 경우 책임자를 색출하고 해당 관계자의 '사과'를 원하는 내용의 제목이 많았는데, 영어 기사에는 이러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허태균(2015, p. 153)은 다른 주변국가 또는 고맥락 문화와 차별되는 한국문화의 독특한 특징을 관계주의로 설명한다. 한국의 가족확장적 문화에서 사람들은 대통령을 단지 행정부의 수반이 아닌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메르스와 같은 역병이나 가뭄의 책임도 군주에게서 찾는다는 것이다. 세월호 또는 이태원 사고와 관련하여 대통령 또는 책임자의 사과를 요구하는 한국인의 심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본 연구의 한국어 기사 분석결과에서도 이와 유사한 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

4.3 토론

본 연구는 이태원 사고와 관련하여 한국과 미국 언론사의 기사 제목에 언어적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그 분석결과를 맥락이론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어 기사는 What과 How, Who/Why 항목이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 영어 기사에서는 How 항목의 비율이 높았다. 해당 사건이 국내에서 일어났음에도 한국어 기사 제목보다 영어 기사 제목에서 감정을 전달하는 How 항목의 비율이 높았고 사상자와 독자와의 관계,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Who/Why 항목도 양국 기사 제목에서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영어 기사는 정보 전달을 지향하며 해외의 재난 보도 시 외부관찰자의 시점을 나타낸다고 기술한 선행연구와 다른 부분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해본 결과 동양은 감정적이거나 직관적이고 서양은 이성적이고 분석적이라는 기존의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를 구분 짓는 틀이 이태원 사고의 보도에는 온전히 적용되지는 않았다. 기존의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한 언어적 차이로 설명되지 않는 지점을 본 연구는 상황적 특성으로 해석하였다.

먼저 한국어 기사의 경우 이태원 사고의 사상자 대다수가 젊은 연령대 및 학생이라는 점에서 국민 정서를 고려하여 감정적인 표현을 자제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국내 언론이 외신보다 재난보도의 방재 기능(이연, 2010)에 초점을 두었던 것으로 해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이태원 사고에 대해 한국에서는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로 300명이 넘는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이래 다시 젊은 연령대의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점을 고려해 사고 발생 직후부터 여야 정치권은 앞선 재난 사태 당시와 같이 민심을 잃지 않도록 ‘입조심’을 당부했고(김경화와 박상기, 2022) 언론 역시 재난 상황 보도 윤리 가이드라인을 작동시키는 동시에(한선, 2022) 그간 크게 확산된 사회관계망 서비스 문화를 우려하여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개개인에게도 주의를 당부하는 등(구무서, 2022) 전국가적으로 감정표현을 자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한편 미국의 경우 자국민 피해자와 사상자가 발생한 까닭에 영어 기사

에서는 이태원 사고를 단순히 해외 소식으로만 전달하는 관찰자 입장이 아닌 참여자 입장에서 전달하여 감정적 어휘의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사고를 전하는 국내외 보도에서 문화적 차이보다는 상황적 특성이 더 많이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부분이다. 이처럼 동일한 재난보도라 해도 국내외의 상황과 입장에 따라 문화적 차이와 상황적 요소가 함께 작용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언급한 고맥락 문화권 내에서도 국가별 특징이 존재한다는 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 한국어 기사 제목에서 책임자의 사과를 요구하는 정서가 강했던 부분은 양국 기사에서 대비되는 특징인 동시에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주경희 등(2016)은 Hall(1976/1989)의 분류에 따라 고맥락 문화권의 대표적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 간에도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 비해 개인주의 문화 특성이 강하며 이 점이 글로벌 기업의 일본 로컬 웹사이트에 반영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타 고맥락 국가와 비교하면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자가 대표로 사과를 해야 이를 받아들이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이태원 사고를 보도한 한국어 기사 제목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따라서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특성이 이태원 사고를 전한 국내외 기사 제목에서 드러났지만 한편 고맥락 문화 안에서 각 국가의 문화에 따른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언어로 표현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이태원 사고라는 특정 사건에 대해 사고 직후 5일간의 특정 시기의 기사 제목만을 분석한 사례 연구로서 본고의 분석결과를 동서양의 보도 양상 및 재난보도의 기사 전체에 대해 일반화해 적용할 수는 없다. 또한, 기사 제목이 갖는 대표성을 고려하여 기사문 전체가 아닌 제목만을 분석하였으나 제목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기사 본문의 내용은 다루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분석하지 못한 한·미 양국 보도 기사의 공통점이나 차

이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외언으로 나타나는 언어적 차이를 야기하는 이유이자 배경으로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존 번역학에서 국내외 언론을 비교한 연구는 주로 이데올로기와 담화 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인용이나 편역, 평가어 등 특정 언어 요소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던 데 반해 본 연구는 번역학 내 뉴스번역 연구에서 아직까지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재난보도라는 특정 분야의 기사를 분석하였다. 또한, 그간 번역학에서도 연구되어 온 맥락이론을 적용하되 그 분석 대상으로 원문 텍스트와 번역 텍스트가 아닌 각 언어로 쓴 텍스트 자체에 내재한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언어적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번역학 분야 연구 주제와 분석대상을 확장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영 뉴스번역의 커뮤니케이션 방식 차이 연구(홍정민, 2013, p. 308)가 아이의 죽음 앞에서 어머니가 자책감 때문에 “It’s my fault. Leave me alone!”를 외쳤던 한국어 표현이 영어권 문화에서 ‘자백’으로 해석되었던 일화에서 출발하여 한국어와 영어 간 표현 방식을 비교하였다면, 본 연구는 서로 다른 두 언어에서 발화 이면에 관계와 감정을 다르게 가정한다는 사실 또한 문화적 차이로 볼 수 있음을 보여주하고자 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화적 차이가 실제 통번역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translation difficulties)을 야기하는지 실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사 제목만이 아닌 기사문 전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더욱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학자들은 ‘뉴스는 세상을 비추는 창(窓)’이라고 말한다(김춘식, 2012, p. 49). 미디어와 인터넷의 발달로 세계 각지의 소식은 이제 바로 지구 반대편에까지 실시간으로 전달되므로 오늘날 뉴스를 통해 비추어지는 세상의 범위와 비추는 창인 매체의 넓이가 모두 이전보다 훨씬 확장되었다 하겠다. 또한, 세계화로 인해 한 국가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 단지 해당 국가 내의 사건으로 그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본고에서 다룬 이태원 사고에서도 나타나듯이 일견 국지적으로 발생했던 재난에도 내국인과 외국인 사상자가 발생하며 그로 인한 여파와 관심이 해외에까지 미친다는 점에서 이제 재난보도는 단지 국내 또는 국외의 사건·사고가 아닌 경계가 모호한 국

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기사와 뉴스의 경우 해외 기사와 뉴스의 번역, 인용이 많이 일어나며 편역과 인용에서의 객관성에 대한 문제는 기존 선행연구에서도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고려한다면 국내외 뉴스를 접할 때 ‘고맥락 문화권의 기사는 감정적, 저맥락 문화권의 기사는 이성적’이라는 일종의 고정관념보다는 각 사례에 대한 해당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기사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번역사가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번역 과정에서 임의로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번역사가 단지 언어만이 아닌 문화중개자(cultural mediator)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시각을 반영할 때(Katan & Taibi, 2021, p. 108), 본고의 분석결과가 향후 기사와 뉴스번역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와 상황적 측면 모두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차 자료>

조선일보, 한겨레, New York Times, Washington Post, Los Angeles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Washington Times, USA Today 2022년 10월 29일~2022년 11월 2일자 이태원 사고 관련 기사

<2차 자료>

강지혜. (2008a). 번역기사의 제목에 관한 연구: [뉴스위크 한국판]의 북한 관련 번역기사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9(2), 7-43.

강지혜. (2008b). 번역에서 인용의 문제: CNN.com 뉴스텍스트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9(4), 7-40.

곡로. (2008). 중국 관련 뉴스 보도에 대한 담화분석 - 한국과 미국 주요 신문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19, 185-214.

구무서. (2022. 10. 31.). “그러게 왜 놀러 가서”... 도 넘은 ‘이태원 참사’ 2차

- 가해. 뉴시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1031_0002068401
- 김경안과 유충. (1997). 재난대응론. 반.
- 김경화와 박상기. (2022. 10. 31.). 與野 모두 입단속 나서... “언행·소셜미디어 글 신중 기해달라”.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10/30/XVQMN23J7FFFZLUJZ72FJSHALM/
- 김선진. (2010). 낚시성 기사 제목의 활용 실태 연구.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0(4), 283-293.
- 김춘식. (2012). 일본·미국·한국 신문의 "東日本 大地震" 보도내용 비교분석. 일본연구, 52, 47-78.
- 김태원과 정정주. (20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시기별 뉴스 프레임 비교 연구. 사회과학연구, 27(1), 199-224.
- 김휘원. (2022. 10. 30.) 이태원 클럽 골목서 비극... 서로 지나가려 밀치다 깔렸다.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incident/2022/10/30/CVWWNSND2ABACTBM5F73UKH2H7Q/>
- 류스원. (2023). 중·한 번역뉴스에서 나타난 편역 연구. 번역학연구, 24(4), 171-202.
- 마승혜. (2011). 장르기반 평가어 한영번역 교육 — 실행 연구를 통한 효과 분석. 번역학연구, 12(4), 69-97.
- 마승혜와 김순영. (2021). 북한소설 『벗』 영역본의 명시화 전략 분석: 감정 표현을 중심으로. 동서비교문학저널, 55, 87-107.
- 박은숙과 김가희. (2014). 한국관련 내외신기사의 제목 및 내러티브 비교분석: 미군 성폭력사건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영어권문화연구, 7(1), 93-119.
- 박재영, 이완수와 노성중. (2009). 한미 (韓美) 신문의 의견기사에 나타난 한국 기자와 미국 기자의 사고습관 차이. 한국언론학보, 53(5), 268-290.
- 백선기와 이옥기. (2012). 보도준칙을 통해서 본 한국 언론의 재난보도. 한국소통학보, 18, 7-54.
- 송연석. (2013). 뉴스편역의 이데올로기 4대강 사업 관련 외신편역의 분석. 통번역학연구, 17(4), 74-100.

- 송연석. (2015). 번역으로서의 인용: 세월호 사건 관련 외신편역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9(1), 59-79.
- 신진원. (2014). ‘세월호 사고’에 관한 한·미 신문 사설 비교 연구: 평가어 체계를 기반으로. *담화와 인지*, 21(3), 123-143.
- 신혜정. (2008). Translation as an Ideology-mediated Process: A Critical Analysis of News Translation. *통번역교육연구*, 6(2), 109-136.
- 엄지원과 천호성. (2022. 12. 7.). “압사는 빠라”... 참사 다음날, 윤 대통령 주재 회의 뒤 결정. 한겨레.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18240?cde=news_my
- 오미형. (2008). 외신 기사 번역 고찰: 인용을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6(1), 137-154.
- 우수민. (2022. 12. 7.). 우영우·수리남 다 제쳤다...올해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는. 매일경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056872?cde=news_my
- 유승관과 강경수. (2011). 세계 뉴스통신사의 재난·재해 뉴스보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76, 140-169.
- 이상빈. (2018).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의 스포츠 선수들은 어떻게 번역되는가? 국내 멀티미디어 스포츠 신문기사에 관한 비평적 담화분석. *통역과 번역*, 20(3), 49-73.
- 이성훈. (2022. 10. 30). 이태원 압사 참사 사상자 ‘296명’... 세월호 이후 최다. SBS.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09283>
- 이연. (2010). 재난방송의 역할과 과제. *방송문화*, 343, 10-15.
- 이준호. (2015). 헤드라인 저널리즘.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19(1), 249-280.
- 이화연과 성승은. (2023). 맥락이론과 앱 로컬라이제이션: 맥도날드와 버거킹의 사례. *번역학연구*, 23(3), 183-214.
- 주경희, 원일월과 김소연. (2016). 아시아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차별화 전략: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商品學研究*, 34(5), 1-10.
- 정나영과 이지환. (2022). 국내 뉴스 번역 연구 경향성에 관한 메타분석. 인

- 문사회 21, 13(4), 1505-1518.
- 정진형. (2022. 11. 3.). “사고·사망자” vs “참사·희생자”...시민들 “명칭이 중요한 때인가”.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21103_0002072201
- 최경희. (2022). 뉴스 기사 제목에 나타나는 문장부호의 번역 — 한영번역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3(4), 175-209.
- 한선. (2022. 11. 2.) [한선의 미디어전망대] 이태원 참사, 잊지 말아야 할 보 도윤리.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065333.html>
- 허태균. (2015). 어찌다 한국인. *중앙북스*.
- 홍정민. (2013). 한영 뉴스번역의 영어권 커뮤니케이션 방식 반영 전략 — Hall의 맥락 이론을 중심으로. *응용언어학*, 29(1), 307-334.
- Choi, I., Nisbett, R. E., & Norenzayan, A. (1999). Causal attribution across cultures: Variation and universality. *Psychological Bulletin*, 125(1), 47-63.
- Draudt, D. (2022, November 1). Was Seoul’s deadly Halloween crush preventable? The Washington Post. <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2022/11/01/seoul-itaewon-stampede-korea-immigrants/>
- Goffman, E. (1974).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Harvard UP.
- Gamson, W. A., & Modigliani, A. (1989). Media discourse and public opinion on nuclear power: A constructionist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5(1), 1-37.
- Hall, E. T. (1976/1989). *Beyond Culture*. Anchor Books.
- Hall, E. T. (1983). *The Dance of Life*. Doubleday.
- Halliday, M. A. K. (1994).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second edition). Edward Arnold.
- Halliday, M. A. K., & Matthiessen, C. M. (2014). *Halliday's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Routledge.
- Iarovici, E. & Amel, R. (1989). The strategy of the headline. *Semiotica*, 77, 441-59.
- Katan, D. (2016). Translation at the cross-roads: Time for the transcultural

- turn?. *Perspectives*, 24(3), 365-381.
- Katan, D. & Taibi, M. (2021). *Translating Cultures: An Introduction for Translators, Interpreters and Mediators* (third edition). Routledge.
- Kim, K. H. (2013). *Mediating American and South Korean news discourses about North Korea through translation: A corpus-based critical discourse analysis*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Manchester]. The University of Manchester Student Theses. <https://research.manchester.ac.uk/en/student-Theses/mediating-american-and-south-korean-news-discoursesabout-north-k>
- Liu, N. X. (2017). Same perspective, different effect: Framing the economy through financial news translation. *Perspectives*, 25(3), 452-463.
- Morris, M. W., & Peng, K. (1994). Culture and cause: American and Chinese attributions for social and physical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6), 949-971.
- Munday, J., Ramos Pinto, S., & Blakesley, J. (2022).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Theories and Applications*. Routledge.
- Nida, E. (1964).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on*. Oxford.
- Pan, Z., & Kosicki, G. M. (1993). Framing analysis: An approach to news discourse. *Political Communication*, 10(1), 55-75.
- Pym, A. (2000). On cooperation. In M. Olohan (Ed.), *Intercultural faultlines* (pp. 181-192). Routledge.
- Schäffner, C. (2012). Rethinking transediting. *Meta*, 57(4), 866-883.
- Song, Y. (2017). Impact of power and ideology on news translation in Korea: A quantitative analysis of foreign news gatekeeping. *Perspectives*, 25(4), 658-672.
- Valdeón, R. A. (2014). From adaptation to appropriation: Framing the world through news translation, *Linguaculture*, 5(1), 51-62.
- Vuorinen, E. (1997). News translation as gatekeeping. In M. Snell-Hornby, Z. Jettmarová, & K. Kaindl (Eds.), *Translation as intercultural communication* (pp. 161-172). John Benjamin's Publish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high-context communication and low-context communication: A case study of the news headlines on the Seoul Halloween crowd crush

Kunyoung Park

Department of American Culture and English, Kyung Hee Cyber University

Sukyong An (corresponding author, haengbok20@naver.com)

Departmen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nference and Communic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linguistic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foreign disaster reporting headlines. Disaster reporting plays a role in delivering facts and information, preventing the public from being shocked and upset, and driving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This paper explores the different linguistic features of the headlines about the Seoul Halloween crowd crush in Korean and English news. After collecting headlines about the disaster with the search word Itaewon, the researchers ran an analysis. The researchers tried to figure out how two different cultures describe the same issue based on three categories: 'What' to deliver facts or information, 'How' to express feelings, and 'Who/Why' to identify relations or to attribute the reason of the crush. The researchers presupposed that Korean headlines, reflecting a high-context communication culture, would focus on conveying context and feelings, while English, reflecting a low-context communication culture, would focus on delivering text and facts. However, the results do not support the hypothesis; Korean headlines show relatively even distribution of three categories while English headlines show a higher proportion of 'How.' The researchers understand Korean headlines to be based on the cultural aspects and situational distinctiveness of the accident, whereas English headlines were influenced only by the situation.

Keywords: Itaewon crowd crush; high-context communication; low-context communication; disaster reporting; news headlines

키워드: 이태원 사고, 고맥락 언어, 저맥락 언어, 재난 보도, 뉴스 기사
제목

박건영(1저자, <https://orcid.org/0009-0000-8305-9494>)

경희사이버대학교 미국문화영어학과 강사

kypark1203@hufs.ac.kr

안수경(교신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EICC학과 강사

haengbok20@naver.com

논문 투고일: 2024년 2월 14일

1차 심사 완료일: 2024년 3월 1일

2차 심사 완료일: 2024년 3월 10일

게재 확정일: 2024년 3월 15일